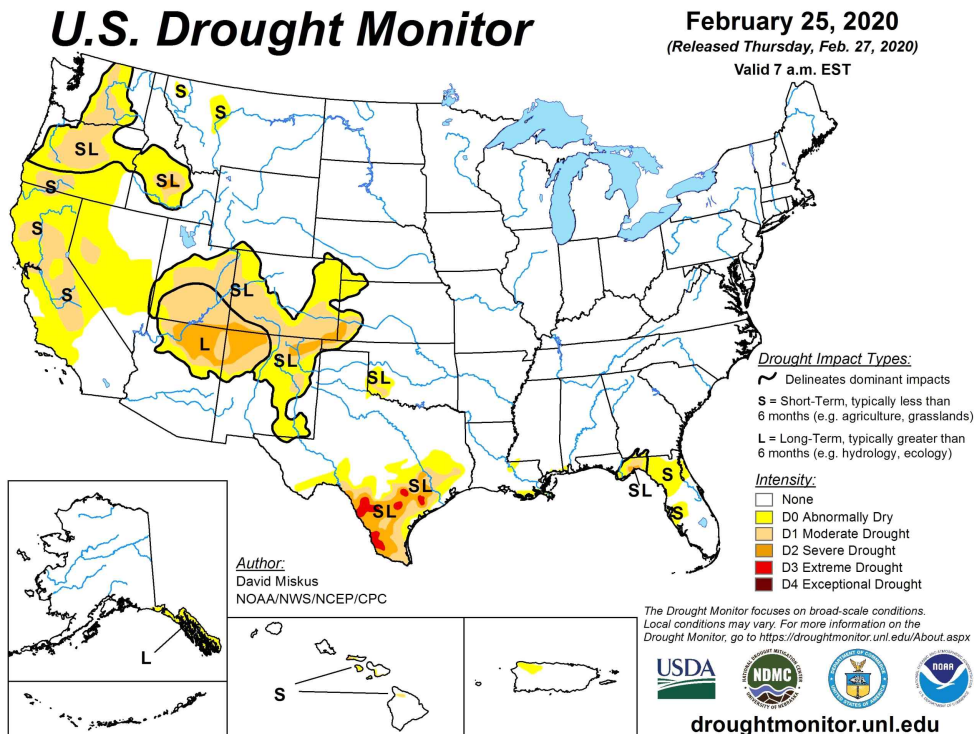


3월 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9)

□ 미국 기후 현황(2/23~2/29)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서 저수지 저장 수준이 거의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관수 수요를 일으켰고 방목지 상태를 악화시켰다. 건조한 날씨가 중서부 위쪽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들로 확대되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날씨는 작년에 기록적인 강수가 있었던 중서부 위쪽 지역에게는 유익했다. 대조적으로 캔사스와 주변 지역, 그리고 미시시피 계곡 중앙과 아래쪽에서부터 대서양 연안까지의 지역 대부분에서 상당량의 강수가 있었다. 일찍이 내렸던 호우에서 생긴 빗물이 큰 강들로 계속 빠지면서 생긴 저지대 홍수는 남부 일부 지역을 계속 괴롭혔다. 비가 북쪽으로 확대되어 오하이오 계곡과 아래쪽 오대호까지 내렸으나 옥수수 벨트 나머지 지역은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 다른 곳에서는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고 평원 북부까지 드문드문 강수가 관찰되었다. 로키 산맥과 남부의 많은 구역들은 평년보다 날씨가 추웠던 것과 대조적으로 극서부와 북부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주들 가운데 많은 주들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캘리포니아, 몬타나, 노스 다코타 주, 미주리 계곡 중부, 그리고 북동부의 많은 곳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던 중에 로키 산맥 지역 일부와 딥 사우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곳들에서는 평균 기온 수치가 평년보다 5° F 가량 낮았다. 딥 사우스에는 주 후반에 몰려온 한파로 기온이 32° F 또는 그 이하로 굴러 떨어졌다. 다만, 리오 그란데 계곡 아래쪽, 멕시코만 근방, 플로리다 반도는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피했다.



## □ 세계 기후 현황(2/23-2/29)

■ 유럽: 북유럽과 중유럽에 폭풍이 계속된 것과 대조적으로 남부 재배 지역은 점점 건조해지고 있었다.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는 지속적인 대단히 강력한 제트 기류가 일련의 강한 저기압 지역들 가운데에서 또 다른 저기압에 연료를 공급하여 유럽 중부, 북부, 동부에 폭우와 고지대 강설을 일으켰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부터 폴란드와 발칸 북부까지 내린 총 강수량은 10-80 mm 였다. 결과적으로 북유럽과 중유럽에 공급된 수분은 녹화되고 있는 겨울 작물들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주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2-5° C 높았다. 한 주 더 일주일 평균 기온이 5° C가 넘었다는 것은 발트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겨울 작물들이 평년보다 최소 6주 앞당겨서 휴면이 깨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계절을 벗어나 겨울 작물이 조기에 녹화된 것이 당장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밀과 유채가 내한성을 잃었기 때문에 늦칠 한파가 올 경우 피해에 더 취약하다. 한편, 폭풍 경로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중해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가뭄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이고 (60일 강수량이 지역적으로 평년 대비 25% 미만), 발칸 서부는 이번 주에 내린 강우 (10-35 mm)로 최근의 건조를 완화시켜주었다. 스페인에는 수분 결핍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초겨울 비가 적당하게 (가끔은 심하게) 내렸기 때문에 겨울 곡물들이 최근의 건조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 호주: 퀸슬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광범위한 소나기 (10-50 mm, 지역적으로는 100 mm 이상)가 계속되어서 토양 수분과 저수 수위를 더욱 올리고 있었다. 이번 재배기 중에 비가 더 내리면 일부 미성숙한 여름 작물들에게는 여전히 유익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작물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빠르게 성숙기에 도달하고 있고 재배기 초기에 극도의 폭염과 건조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최근 강우는 대개 4월 중순에 시작되는 겨울 밀 파종에 앞서서 토양 조건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지역을 괴롭혀 온 심각한 장기 가뭄을 끝내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호주 동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 근처였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20도대 중반에서 낮은 30도대에 있었다.

■ 아르헨티나: 지난 주 비가 광범위하게 내렸지만 이후로 대체로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주로 나타나서 나라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여름 작물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다. 상당량의 비는 (지역적으로 10 mm 이상) 코르도바 북부를 포함하여 주로 일부 서부 농업 지역에 한정되었고 나라의 많은 구역들이 완전한 건조를 기록했다. 서부 농업 지역 (라 팜파에서부터 주주까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근방 또는 평년보다 약간 높았고 북동부 (동차코와 포르모사를 중심으로 한 면화 지대를 포함하여)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4° C 낮았다. 그러나, 며칠 동안 계절을 벗어난 쌀쌀한 날씨 (남부 농업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10° C 이하로 강하)에 이어서 온난화 추세가 일어나 지난 주 하반기 중에는 낮 최고 기온을 낮은-중간 섭씨 30도 대로 밀어올려서 작물의 성장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월 27일 현재, 해바라기 수확은 아르헨티나 중부에서 야외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작년 속도 (43%)보다 크게 뒤쳐져서 36% 수준에 머물렀다.



■ 브라질: 브라질의 주요 여름 재배지 전체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계속되었다. 다만, 건조 포켓 때문에 아직도 출현 중인 2차 작물 옥수수를 위해서 수분이 더 필요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비교적 짧은 거리 내에서도 강우량의 변동폭은 5 mm 미만에서 100 mm 초과까지에 이를 정도로 매우 컸다. 북부 생산 지역에서는, 마토 그로소의 외곽에 위치한 옥수수와 면화 지역과 마란하오 남부 인근에 건조 포켓 (10 mm 이하의 총강우량)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더 집약적으로 생산하는 다른 지역들에서는 지역적으로 심하게 내린 소나기 (25-50mm 이상)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2월 28일 현재, 마토 그로소의 콩은 84% 수확되었고 옥수수는 92% 파종이 완료되었다. 한편, 고이아스에서 남동쪽으로 미나스 게라이스를 거쳐 중간-강한 소나기 (지역적으로 총 강우량이 100 mm 이상)가 계속되어 사탕수수와 커피 등의 미성숙한 여름 밭 작물들의 늦은 상성을 일으켰다. 한편, 마소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남쪽으로 조각 비가 내려서 계절 야외 작업에는 좋았지만 2차 작물들의 토양 수분 공급은 계속 제한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차 작물 옥수수와 콩의 수확은 2월 26일 현재 각각 37%, 42%가 완료되었다. 또한, 2차 작물 옥수수는 61%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2월 27일 현재 거의 모든 옥수수가 생식-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50%는 이미 수확되었다. 콩도 대부분 생식기에 도달했지만 지금까지 수확된 것은 2%였다.